

학령전기 아동의 연령에 따른
이야기 회상 산출 능력

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 협동과정
김 기 순

학령전기 아동의 연령에 따른
이야기 회상 산출 능력

지도 신 지 철 교수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6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 협동과정
김 기 순

김기순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6년 6월 일

감사의 글

뒤늦게 다시 시작한 대학원 생활은 새로운 활력소이자 숨가쁘게 넘어야 할 언덕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잘해내지는 못했지만 끝까지 열심히 노력했기에 스스로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힘겨웠지만 결코 후회스럽지 않은 대학원 생활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논문을 완성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의 논문을 꼼꼼히 확인해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신지철 교수님, 논문의 전반적인 흐름을 잡아주셨던 이기학 교수님, 춘천과 서울을 오가며 많은 시간을 허락해주시고 늘 용기와 격려를 주셨던 배소영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늘 지켜봐 주시고, 관심과 용기를 주셨던 김향의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실험에 협조해 주신 일산뼈아제어린이집 선생님들과 어린이들에게도 더없는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딸자식처럼 마음을 써주신 연미 어머니님, 미현 어머니님께도 감사드리며, 언제나 선배로서의 따뜻한 충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최성희 선생님, 최재남 선생님, 김민정 선생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논문학기를 함께 한 미현, 현아, 유정, 지혜, 찬희, 그리고 언제나 애뜻한 동기 연미, 선우, 미영언니, 영임이, 뒤에서 응원의 박수를 보내 주었던 여러 후배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표현하지 않아도 제 힘겨움을 묵묵히 이해해 주었던 경순, 혜정, 경량, 회정, 미혜, 선일, 10년 지기 친구 지연, 승아, 성환, 용택, 성원, 병철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늦은 나이에 다시 공부를 시작한 딸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묵묵히 지켜봐 주신 아버지, 언제나 기도하시며 저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 주신 어머니, 하나뿐인 동생 충렬이에게 진심어린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연구자 씀

차 례

| | |
|------------------------|----|
| 국문 요약 | v |
| I. 서 론 | 1 |
| II. 연구 대상 및 방법 | 7 |
| 1. 연구 대상 | 7 |
| 2. 연구 방법 | 8 |
| 가. 검사 도구 | 8 |
| 나. 자료 수집 | 8 |
| 다. 자료 분석 | 9 |
| 라. 신뢰도 분석 | 10 |
| 마. 통계 분석 | 10 |
| III. 결 과 | 12 |
| 1. 이야기 문법 | 12 |
| 가. 이야기 문법 총점 | 12 |
| 나. 이야기 문법 하위 범주별 회상 점수 | 13 |
| 2. 낱말로 본 평균절길이 | 16 |
| 3. 형태소로 본 평균절길이 | 17 |
| IV. 고 찰 | 18 |
| V. 결 론 | 24 |

| | |
|--------------------------------|----|
| 참고 문헌 | 26 |
| <부록 1> 그네 이야기 - 회상용 | 29 |
| <부록 2> 공 이야기 - 회상용 | 30 |
| <부록 3> 이야기 문법 채점 기준 | 31 |
| <부록 4> c-unit 구분 및 평균절길이 채점 기준 | 32 |
| Abstract | 33 |

그림 차례

| | |
|-------------------------------------|--------------|
| 그림 1. ‘그네 이야기’의 이야기 문법 하위 범주별 회상 점수 | · · · · · 14 |
| 그림 2. ‘공 이야기’의 이야기 문법 하위 범주별 회상 점수 | · · · · · 14 |

표 차 례

| | |
|---|----|
| 표 1. 대상 아동의 생활연령 | 7 |
| 표 2. 검사자의 검사절차 신뢰도 항목 및 평가점수 | 10 |
| 표 3. 이야기 문법 총점에 대한 Tukey 사후검정 결과 | 12 |
| 표 4. 이야기 문법 하위 범주별 회상 점수와 Tukey 사후검정 결과 | 13 |
| 표 5. 낱말로 본 평균절길이에 대한 Tukey 사후검정 결과 | 16 |
| 표 6. 형태소로 본 평균절길이에 대한 Tukey 사후검정 결과 | 17 |

학령전기 아동의 연령에 따른 이야기 회상 산출 능력

이야기 능력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달한다. 4세가 되면 본격적인 이야기 발달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6세가 되면 완성도가 높아진다. 이러한 정상 아동의 이야기 발달 정보는 언어장애 아동의 진단 평가 및 치료 교육에서 유용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6세 아동을 대상으로 이야기 회상 산출을 통해 연령 간 이야기 문법 총점, 낱말로 본 평균절길이(MLC-w), 형태소로 본 평균절길이(MLC-m)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4~6세 정상 아동 6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검사 도구는 배소영의 ‘그네 이야기’와 ‘공 이야기’를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검사자가 아동에게 그림카드를 보여주고 이야기를 들려준 다음, 그림카드를 제거하고, 아동이 이야기를 회상하여 산출하도록 하였다. 분석은 이야기 문법 총점과 낱말로 본 평균절길이(MLC-w), 형태소로 본 평균절길이(MLC-m)를 산출하여 연령 간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이야기 문법 총점은 연령에 따라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세 집단은 5세, 6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으며, 5세 집단은 6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이야기 문법 하위 범주별 회상 점수도 배경, 계기 사건, 내적 반응, 시도, 결과가 모두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낱말로 본 평균절길이(MLC-w)는 연령에 따라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세 집단은 5세 집단과 6세 집단보다 유의하게 짧게 나타난 반면, 4세 집단과 5세 집단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형태소로 본 평균절길이(MLC-m)는 연령에 따라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세 집단은 5세, 6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짧았으며, 5세 집단은 6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짧게 나타났다. 낱말로 본 평균절길이(MLC-w)에서 4세

집단과 5세 집단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것과 대조되는 결과이다. 이는 우리말이 조사, 어미와 같은 문법 형태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낱말로 본 평균절길이(MLC-w)보다 형태소로 본 평균절길이(MLC-m)에서 연령에 따른 발달을 더 잘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이야기 문법과 평균절길이(MLC)로 학령 전기 아동의 이야기 회상 능력이 양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야기 평가시 이야기 문법과 평균절길이(MLC)로 분석하는 것이 이야기 발달을 보는데 적절하고 효율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야기 문법과 평균절길이(MLC)로 학령기 아동들에게도 연령에 따른 이야기 능력 발달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와 이야기 과제에서 정상 아동들의 실수 경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표준화된 이야기 검사 도구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들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어: 이야기, 학령전기 아동, 회상 산출, 이야기 문법, 평균절길이(MLC)

학령전기 아동의 연령에 따른 이야기 회상 산출 능력

<지도교수 신 지 철>

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 협동과정

김 기 순

I. 서 론

언어장애를 진단할 때는 낱말이나 문장 수준의 이해 및 산출뿐 아니라 문장 이상의 상위 단위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¹ 따라서 평가 시 문장 수준 이상의 단위인 이야기 과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야기 과제는 기본적인 문법 표현 뿐 아니라 아동의 실생활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을 알 수 있는 민감한 평가 도구이다.² 이야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주제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말로써 논리 구조를 전개시켜야 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이야기는 의미론, 구문론, 화용론 등 언어의 하위 구성요소와 관련된 언어적 기술뿐만 아니라, 아동의 논리 구조와 상위 언어적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이다.²

또한 이야기 산출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통해 아동의 인지적, 사회적, 언어적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야기 평가는 인지적, 사회적, 언어적 발달의 지표를 제시해줄 수 있다.³ Bishop과 Edmundson⁴은 언어장애아동 87명을 대상으로 중단연구를 하였다. 4세에 평가 후, 4세 6개월, 5세 6개월에 각각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야기 회상능력이 아동의 언어적인 문제가 앞으로 지속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된다고 하였다. 또한 Paul과 Smith⁵는 2세에 표현언어 발달 지체로 진단받은 아동들을 종단 연구하였다. 대상 아동들은 4세가 되었을 때 약 43%가 말이 늦게 트이는 아동(late bloomer)으로 재분류되었으나, 이야기 회상 능력 및 어휘력은 여전히 언어발달지체 아동들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야기 능력 평가에서 낮은 수행을 나타낸 표현언어 발달지체 아동들은 학령 전까지 발달이 지체되고, 이야기 능력이 학업 수행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학업에도 어려움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야기 과제는 읽기, 쓰기와 관련된 학령기 학업 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를 제공한다.⁶ 특히 표준화된 이야기 검사는 아동의 전반적인 언어평가를 위한 효율적인 평가 방법일 뿐 아니라, 읽기 및 쓰기를 포함하는 통합적인 언어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유용한 도구이다.^{7,8}

아동의 이야기를 평가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상아동의 이야기 발달 특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정상 아동들의 이야기 발달 연구들을 보면, Orsolini⁹는 3~4세 아동의 이야기 산출에서는 구조적인 제한이 많지만 5세가 되면 발달이 가속화된다고 하였다. Botvin과 Sutton-Smith¹⁰는 3세 아동은 행위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만 적절한 명사를 나열함으로써 초보적인 이야기 형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4세 아동은 사건과 행위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지만 여전히 이야기가 연결되지 않고 미완성하는 경우가 많으며, 5세가 되어야 사건의 진행과 갈등을 유기적으로 구조화한다고 하였다. Applebee¹¹는 5세가 될 때까지 아동은 주인공과 연결된 사건들을 통합하여 산출하지 못하고, 이야기의 구조적인 제한점이 있으며, 5세 즈음에 발달이 가속화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아동들의 이야기 발달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배소영¹²은 4세 이전 아동들은 새로운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는 시도를 하고, 주요 낱말들을 산출할 수 있지만, 이 낱말들을 이야기로 연결하는 능력은 아직 부족하다고 하였다. 또한 상대방이 이야기를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표현을 하기도 하며, 이야기와 관련 없는 자신의 경험을 길게 늘어놓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4세가 되면 비로소 이야기구조나 언어구조에서 급진전을

나타내는데, 이야기구조면에서는 이야기 문법의 기본구조가 성립되고, 언어구조면에서는 연결어미의 사용이 보다 자연스러워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건을 포함하는 인과적 연결 관계의 이야기는 아직 이야기 문법 구조를 가지고 산출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였다. 또한 명사를 나열하거나 생략이 심한 경우가 많고, 부분적인 기술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5세 아동은 사건이 포함된 이야기의 기본구조를 갖추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때에도 이야기의 전달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대용어를 많이 쓰거나, 비슷한 주제로 대치하고, 도입과 결말 부분만을 제대로 묘사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6세가 되면 복잡한 이야기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며 연결 어미 및 접속 부사의 표현도 다양하고 정확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아동의 이야기 산출은 4세에 기본적인 구조를 갖추게 되고, 5-6세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달하여 완성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상 아동의 언어발달은 언어장애 아동의 진단 평가 및 치료 교육에서 유용하게 쓰인다.^{13,14} 언어발달에서 얻은 정보는 언어발달 장애의 유무를 판별하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언어의 특정 하위영역에서의 각 아동의 강·약점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개인 간 및 개인 내 언어발달 수준에 대한 자세한 파악은 치료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준다.¹²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연령에 따른 이야기 발달의 특성에 대한 질적 연구들이 대부분이고, 연령에 따른 양적인 증가를 제시하고 있는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외국의 준거 자료들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말의 특성과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우리나라 아동들과 비교하여 사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현재 이야기 평가 시 준거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야기 평가는 대개 이야기 문법을 통한 이야기 내용의 분석과 문장의 길이와 복잡성을 통한 언어적인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야기 내용을 분석하는 방법은 아동이 산출한 이야기에 이야기 문법이 등장하는지는 보는 것이다. 다른 언어 영역과 마찬가지로 이야기 능력도 연령에 따라 발달해 가는데,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것 뿐 아니라 이야기라는 담화 구조를 습득해가는 과정을 거친다. 즉, 이야기 문법의 발달을 통해 이야기의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을 뜻한다.¹⁵ 이야기 문법은 이야기에서 흔히 발견되는 규칙을 설명하기 위해 개발된 규칙 체계로서, 대표적인 이야기문법 규칙은 Stein과 Glenn¹⁶의 이야기 문법 규칙으로

배경과 일화체계(episode system)로 이루어지며, 각각의 에피소드는 배경(setting information), 계기 사건(initiating event), 내적 반응(internal response), 시도(attempt), 결과(direct consequence) 및 결과에 대한 반응(reaction)의 여섯 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배경은 주인공을 소개하고, 등장인물에 대한 소개를 한다. 계기 사건은 주인공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외적, 내적 사건의 정보가 나오며, 주인공의 목표를 위한 동기도 포함한다. 내적 반응은 주인공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진술된다. 내적 반응의 주요 기능은 목표를 달성하도록 주인공을 인지적, 정서적으로 동기화시키는 것이다. 시도는 내적 반응에서 계획된 행동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다. 결과는 주인공이 목표를 달성했는지의 여부가 나타난다. 반응은 에피소드의 마지막 부분에 놓이게 되며, 목표 달성에 대한 주인공의 느낌과 생각이다. 이러한 이야기 문법 요소는 이야기 평가에서 꼭 필요한 필수적인 분석 대상이다. Johnston¹⁷은 아동의 이야기 능력 평가시 Stein과 Glenn¹⁶의 이야기 문법 체계를 이용할 것을 제안하였고, Kintsch 등¹⁸도 이야기 문법의 발달 단계를 통해 이야기의 능력을 알아보는 것이 유용하다고 하였다. 또한 김유정과 배소영¹⁹의 학령전 단순언어장애아동과 정상언어발달아동의 이야기 능력에 대한 연구를 보면, 이야기 발달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이야기 문법 사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언어적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은 얼마나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소를 포함하고 있는지, 얼마나 다양한 낱말들이 나오는 지를 보는 것이다. 아동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소를 이용하여 더 길게 이야기한다. Strong¹은 미국의 대표적인 이야기 평가 도구인 SNAP(Strong Narrative Assessment Procedure, 1998)에서 종속절이 포함된 하나의 주절로 이루어진 단위를 C-unit이라고 하고, MLC(Mean Length of Communication)를 산출하여 언어적 길이를 평가하였다. MLC는 MLC-w(Mean Length of Communication in words)와 MLC-m(Mean Length of Communication in morphemes)으로 나눌 수 있다. MLC-w는 낱말로 본 평균절길이로서 이야기의 총 낱말 수를 총 C-unit 수로 나누어 평균을 구한 것이고, MLC-m은 형태소로 본 평균절길이로서 이야기의 총 형태소 수를 총 C-unit으로 나눈 것이다.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아동의 이야기 발

달의 양적 측정을 위해 평균절길이(MLC)를 사용하여 왔고, 언어장애 아동을 진단 하거나 연구 집단을 설정하는 기준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4세 아동의 이야기 능력을 연구한 Paul과 Smith⁵도 정상 아동과 언어장애 아동, 말이 늦게 트이는 아동(late bloomer)의 이야기 능력을 비교하기 위해 분석 시 평균절길이(MLC)를 이용하였다. 또한 검사 절차와 방법에 따른 아동의 이야기 회상 능력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평균절길이(MLC)는 이야기 회상 능력을 대변하는 중요한 잣대로 사용되었다.²⁰ 조사 사용과 어미 활용이 많은 우리말에서는 형태소로 본 평균절길이(MLC-m)가 아동의 문법적인 발달을 볼 수 있는 좋은 척도가 된다. 현재까지 영어권 국가에서는 이미 연령에 따른 평균절길이(MLC) 규준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우리말은 많은 문법형태소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를 기준으로 연구한 결과를 임상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²⁰

이야기 평가를 위해 이야기를 유도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이야기 자발적 산출(story generation)과 이야기 회상산출(story-telling)이 있다. 이야기 자발적 산출은 아동이 자발적으로 이야기를 만들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동에 따라 산출된 이야기의 길이와 내용, 구조에 편차가 크기 때문에 언어평가를 위한 규준 자료로는 적절하지 않고, 이야기 구조에 대한 지식 결여인지, 이야기 구조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 결과인지 결과 해석이 모호하다는 단점이 있다.²¹ 이야기 회상산출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알려준 다음 이를 아동 스스로 기억하여 다시 말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야기 회상산출은 자발산출에 비해 개인 간 편차가 크지 않고, 채점이 용이하다.³ 또한 이야기의 길이, 이야기의 복잡성, 오류 분석, 이해 과정 분석 및 신뢰도의 측면에서 모두 임상적인 의미가 있고,² 이야기 문법 지식을 가진 아동은 더 많은 전반적인 정보를 회상할 수 있고, 중요하지 않은 정보보다 핵심적인 내용을 더 정확하게 기억하고, 부정확한 진술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 평가시 매우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다.²²

우리나라 아동의 이야기 발달 연구는 아직 외국에 비해 많이 부족하지만, 배소영³의 ‘그네 이야기’와 ‘공 이야기’를 이용하여 정상 아동들과 장애 아동들의 이야기 산출 특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3,19} 또한 ‘그네 이야기’와 ‘공 이야기’는 정상 아동들뿐 아니라 언어장애아동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로 이용되

고 있다.^{3,19} 실제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임상에서 평가 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정상 아동들의 이야기 발달에 대한 양적 연구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평가 결과의 해석이 어려울 때가 많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그동안 선행 연구에서 이용되어 온 ‘그네 이야기’와 ‘공 이야기’를 이용하여 본격적인 이야기 발달이 이루어지는 4세부터 이야기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6세까지의 학령 전기 일반 아동들의 이야기 회상산출 능력을 양적으로 측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아래와 같다.

- 4, 5, 6세 아동의 이야기 회상산출 능력은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가?
1. 각 집단의 이야기 문법 점수는 증가하는가?
 2. 각 집단의 평균절길이(MLC)는 증가하는가?
 - 가. 각 집단의 낱말로 본 평균절길이(MLC-w)는 증가하는가?
 - 나. 각 집단의 형태소로 본 평균절길이(MLC-m)는 증가하는가?

II.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학령 전기 아동 6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4;0~4;11 아동 20명, 5;0~5;11 아동 20명, 6;0~6;11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남녀 비율은 1:1이었다. 각 아동은 (1) 부모나 교사에 의해 발달 장애, 정서장애, 행동장애가 없다고 보고된 아동으로, (2) 『PRES(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²³의 표현언어 실시 결과, 생활연령과 비교하여 통합언어연령이 -12개월 미만으로 지체되고, (3) 『구문의미이해력 검사』²⁴ 결과, -1 표준편차 이상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1. 대상 아동의 생활연령

(단위: 개월)

| 연령 | 남(n=10) | 여(n=10) | 계 |
|----|-----------|-----------|------------|
| 4 | 52.1±2.69 | 53.0±4.00 | 52.55±3.35 |
| 5 | 66.2±3.85 | 66.3±4.09 | 66.25±3.86 |
| 6 | 76.7±3.56 | 77.7±2.58 | 76.85±3.03 |

값은 평균±표준편차

2. 연구 방법

가. 검사 도구

아동에게 이야기 회상 산출을 유도하기 위해 배소영³의 ‘그네 이야기’와 ‘공 이야기’를 사용하였다. ‘그네 이야기’와 ‘공 이야기’는 회상 산출을 유도하기 위한 이야기로 선행연구에서 아동들의 자발적 산출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진 이야기이다.¹⁹ ‘그네 이야기’는 두 개의 일화가 시간적 순서에 따라 대등적으로 연결된 시간적 연결 관계의 이야기로 총 7개의 C-unit으로 구성되었다. 인과적 연결 관계의 이야기인 ‘공 이야기’는 두 개의 일화로 총 9개의 C-unit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이야기는 이야기 Stein과 Glenn¹⁶의 여섯 가지 이야기 문법 범주 중 다섯 가지인 배경, 계기 사건, 내적 반응, 시도,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부록 1-4).

나. 자료 수집

기초검사인 『PRES(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²³와 『구문의미이해력 검사』²⁴를 통해 선정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기초 검사 실시 후 1주일 이내에 본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본 검사의 절차는 검사자가 첫번째 이야기인 ‘그네 이야기’의 그림카드를 순서대로 나열한 후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림카드를 치운 후 아동이 회상 산출하도록 하였다. 두번째 이야기인 ‘공 이야기’도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아동이 과제 수행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조용한 방에서 아동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야기는 녹음을 해서 들려주었을 때, 아동이 지루해한다는 선행연구에 따라 아동이 집중을 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검사자가 직접 아동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¹⁶ 아동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절직한 억양을 이용하여 들려주었으며, 들려준 이야기의 평균 속도는 ‘그네 이야기’가 35초, ‘공 이야기’가 42초였다.

아동에게 이야기 내용은 녹음해서 엄마나 다른 친구에게 들려줄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만약 아동이 이야기를 시작하지 못하면 “누구랑 누가 뭐하고 있었지?”라고 시작을 유도하고, 중간에 머뭇거리면 “또?”, “응?” 등으로 이야기를 진행

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이야기를 중단하거나, 끝까지 이야기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끝이야?”하고 물어서 아동이 이야기를 종료한 것인지를 확인하였다. 아동의 이야기 산출 과정은 MP3를 이용하여 모두 녹음하며, 녹음 후 3일 이내에 검사자가 내용을 전사하였다.

다. 자료 분석

(1) 이야기 문법에 관한 분석

본 연구는 회상연구이므로 들려준 이야기에 해당되는 내용만 분석하였다. Stein과 Glenn¹⁶의 이야기 문법 분류(배경, 계기 사건, 내적반응, 시도, 결과)를 따랐다. 이야기 문법 총점은 Strong¹의 SNAP(Strong Narrative Assessment Procedure, 1998)에서와 같이 이야기 문법 하위 범주들이 등장할 때마다 1점을 부여하였다.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었을 때, 또는 앞선 발화와 주어가 동일하여 생략된 경우 완전한 내용으로 간주하여 1점을 부여하였다. 주어가 확실하지 않은데 생략했거나, 문장을 끝맺음하지 못한 경우 불완전한 내용으로 간주하여 점수를 부여하지 않았다(부록 5). 그네 이야기는 9개의 이야기 문법 요소를 포함하고, 공 이야기는 11개의 이야기 문법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한 아동이 획득할 수 있는 최고 점수는 20점이었다.

(2) 낱말로 본 평균절길이(MLC-w)에 관한 분석

아동이 산출한 이야기에 대해 낱말로 본 평균절길이(MLC-w)를 분석하였다. 낱말로 본 평균절길이(MLC-w)는 각 이야기에서 나타난 낱말 수의 합을 총 C-unit의 수로 나누어 산출하였다(부록 6). 낱말의 구분은 김영태의 구분 원칙을 따랐다.²¹ 주어를 생략했거나 문장 끝맺음을 하지 않아 이야기 문법에서 0점 처리한 C-unit도 회상한 내용이 적절하면 분석에 포함시켰다.

(3) 형태소로 본 평균절길이(MLC-m)에 관한 분석.

아동이 산출한 이야기에 대해 형태소로 본 평균절길이(MLC-m)를 분석하였다.

형태소로 본 평균절길이(MLC-m)는 각 이야기에서 나타난 형태소 수의 합을 총 C-unit의 수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형태소의 구분은 김영태의 구분 원칙을 따랐다.²¹ 주어를 생략했거나 문장 끝맺음을 하지 않아 이야기 문법에서 0점 처리한 C-unit도 최상한 내용이 적절하면 분석에 포함시켰다(부록 6).

라. 신뢰도 분석

산출분석에 대한 신뢰도는 전체 아동의 10%에 해당하는 자료를 임의로 선택한 후, 언어병리학 전공자이며 언어치료의 경험이 있는 2차 검사자 2명에게 오디오 자료를 재분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전사 신뢰도는 99%, 분석 신뢰도는 94%였다.

검사자의 검사절차에 대한 신뢰도는 검사자가 대상 아동들에게 얼마나 똑같은 조건으로 이야기를 들려주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전체 자료의 10%에 해당하는 자료를 언어병리학 전공자 3인이 평가하였다. 평가는 4항목에 걸쳐 5점 척도(0, 1, 2, 3, 4)를 사용하였고, 평균점수는 3.67이었다.

표 2. 검사자의 검사절차 신뢰도 항목 및 평가점수

| 평가항목 | 이야기의 속도 | 목소리의 크기 | 말 명료도 | 억양 | 전체 |
|-------------|-------------|-------------|----------|-------------|-------------|
| 평균점수(±표준편차) | 3.67(±0.58) | 3.67(±0.58) | 4(±0.00) | 3.34(±0.58) | 3.67(±0.27) |

최저점수 0점 - 최고점수 4점

윤혜련¹⁶에서 인용함

마. 통계 분석

SPSS 통계 프로그램(version 12.0)을 사용하여 통계적 검증을 하였다. 연령에 따른 이야기 문법 점수의 평균 차이와 평균절길이(MLC)의 평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요인 분석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하였다. 통계학적 유의 수준은 0.05 미만으로 하였다.

Ⅲ. 결 과

1. 이야기 문법

가. 이야기 문법 총점

4, 5, 6세 집단을 대상으로 연령에 따른 이야기 문법 점수를 알아본 결과, 4세는 5.50 ± 3.47 , 5세는 9.55 ± 3.47 , 6세는 12.90 ± 3.47 으로 연령에 따라 증가하였다. 세 집단의 이야기 문법 점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one-way ANOVA를 실시한 결과, 이야기 문법 총점은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00$).

평균 차이가 나타나는 집단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 검정을 한 결과, 4세, 5세, 6세 집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 이야기 문법 총점에 대한 Turkey 사후 검정 결과

| 집단 | 평균차 | 표준오차 | p-value |
|-------|--------|-------|---------|
| 4세-5세 | -4.050 | 1.066 | 0.001* |
| 4세-6세 | -7.400 | 1.066 | 0.000* |
| 5세-6세 | -3.350 | 1.066 | 0.007* |

나. 이야기 문법 하위 범주별 회상 점수

‘그네 이야기’와 ‘공 이야기’의 이야기 문법 하위 범주별 점수를 산출한 결과, 배경, 계기 사건, 내적 반응, 시도, 결과가 모두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그림 1, 그림 2). 세 집단의 이야기 문법 점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one-way ANOVA를 실시한 결과, ‘그네 이야기’의 내적 반응을 제외하고 모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표 4. 이야기 문법 하위 범주별 회상 점수와 Turkey 사후 검정 결과

| | | 4세 | 5세 | 6세 | p-value |
|-------|-------|------------------------|-------------------------|------------------------|---------|
| 배경 | 그네이야기 | 0.40±0.42 ^a | 0.73±0.73 ^b | 0.88±0.88 ^b | 0.000* |
| | 공이야기 | 0.45±0.51 ^a | 0.95±0.22 ^b | 1.00±0.00 ^b | 0.000* |
| 계기 사건 | 그네이야기 | 0.55±0.51 ^a | 0.70±0.47 ^{ab} | 0.95±0.22 ^b | 0.014* |
| | 공이야기 | 0.31±0.22 ^a | 0.46±0.25 ^{ab} | 0.62±0.22 ^b | 0.000* |
| 내적 반응 | 그네이야기 | 0.08±0.18 ^a | 0.25±0.34 ^a | 0.28±0.38 ^a | 0.099 |
| | 공이야기 | 0.05±0.15 ^a | 0.15±0.24 ^a | 0.50±0.36 ^b | 0.000* |
| 시도 | 그네이야기 | 0.38±0.39 ^a | 0.65±0.40 ^b | 0.65±0.40 ^b | 0.042* |
| | 공이야기 | 0.13±0.22 ^a | 0.33±0.29 ^{ab} | 0.45±0.32 ^b | 0.002* |
| 결과 | 그네이야기 | 0.48±0.38 ^a | 0.60±0.41 ^{ab} | 0.85±0.24 ^b | 0.005* |
| | 공이야기 | 0.24±0.31 ^a | 0.37±0.40 ^a | 0.67±0.30 ^b | 0.001* |

같은 문자는 같은 집단을 의미함

그림 1. '그네 이야기'의 이야기 문법 하위 범주별 회상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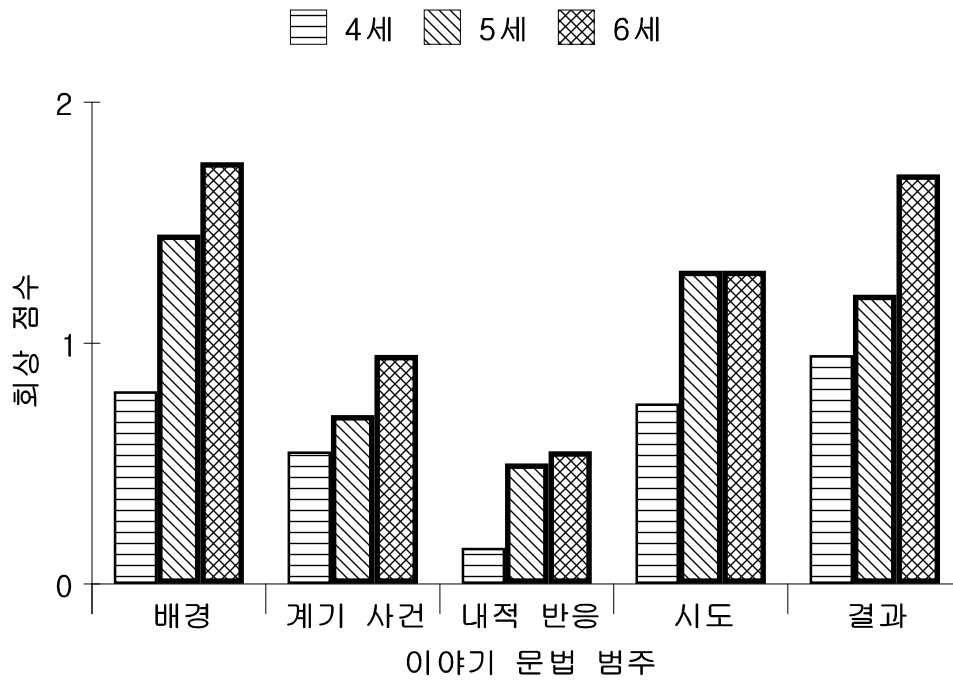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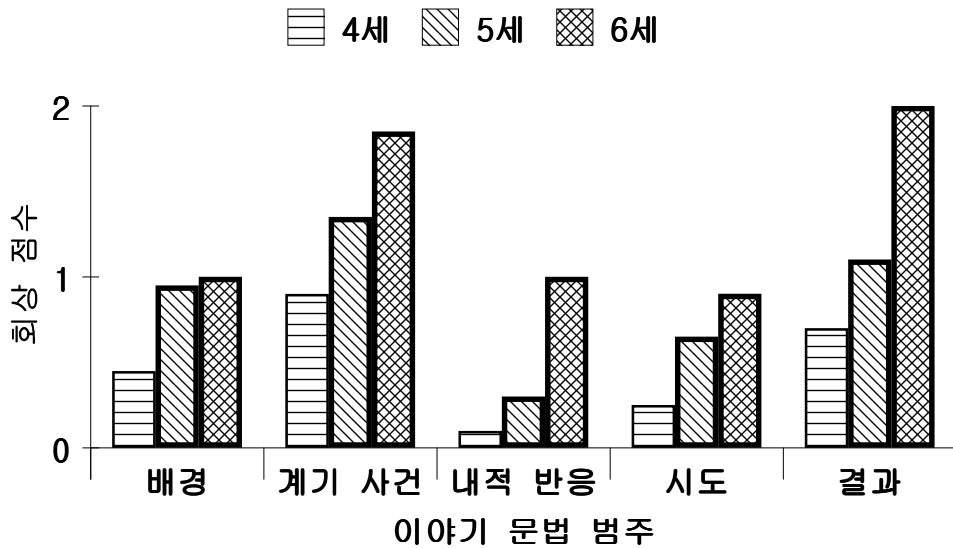


그림 2. '공 이야기'의 이야기 문법 하위 범주별 회상 점수



평균 차이가 나타나는 집단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 검정을 한 결과, 배경은 ‘그네 이야기’와 ‘공 이야기’ 모두 4세 집단이 5세 집단, 6세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고, 5세 집단이 6세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기사건은 ‘그네 이야기’와 ‘공 이야기’ 모두 4세 집단이 6세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적반응은 ‘공 이야기’에서만 4세 집단이 5세 집단과 6세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는 ‘공 이야기’에서만 4세 집단이 6세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그네 이야기’, ‘공 이야기’ 모두 4세 집단이 6세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

2. 낱말로 본 평균절길이(MLC-w)

4, 5, 6세 집단을 대상으로 연령에 따른 낱말로 본 평균절길이(MLC-w)를 알아본 결과, 4세는 9.02 ± 1.94 , 5세는 10.25 ± 1.94 , 6세는 12.29 ± 1.94 로 연령에 따라 증가하였다. 세 집단의 낱말로 본 평균절길이(MLC-w)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one-way ANOVA를 실시한 결과, 낱말로 본 평균절길이(MLC-w)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0$).

평균 차이가 나타나는 집단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 검정을 한 결과, 4세 집단은 5세 집단과 6세 집단보다 유의하게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세 집단과 5세 집단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6).

표 5. 낱말로 본 평균절길이(MLC-w)에 대한 Turkey 사후 검정 결과

| 집단 | 평균차 | 표준오차 | p-value |
|-------|---------|--------|---------|
| 4세-5세 | -1.2300 | 0.5913 | 0.103 |
| 4세-6세 | -3.2750 | 0.5913 | 0.000* |
| 5세-6세 | -2.0450 | 0.5913 | 0.003* |

3. 형태소로 본 평균절길이(MLC-m)

4, 5, 6세 집단을 대상으로 연령에 따른 형태소로 본 평균절길이(MLC-m)를 알아본 결과, 4세는 15.05 ± 2.07 , 5세는 16.96 ± 2.05 , 6세는 19.03 ± 2.70 으로 연령에 따라 증가하였다. 세 집단의 형태소로 본 평균절길이(MLC-m)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one-way ANOVA를 실시한 결과, 낱말로 본 평균절길이(MLC-m)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0$).

평균 차이가 나타나는 집단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 검정을 한 결과, 4세 집단은 5세 집단과 6세 집단보다, 5세 집단은 6세 집단보다 유의하게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7).

표 6. 형태소로 본 평균절길이(MLC-m)에 대한 Turkey 사후 검정 결과

| 집단 | 평균차 | 표준오차 | p-value |
|-------|---------|--------|---------|
| 4세-5세 | -1.9150 | 0.7251 | 0.028* |
| 4세-6세 | -3.9800 | 0.7251 | 0.000** |
| 5세-6세 | -2.0650 | 0.7251 | 0.017* |

IV. 고 찰

우리는 아동의 이야기 능력을 통해 실생활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을 알 수 있고, 언어뿐 아니라 인지적, 사회적 능력도 평가할 수 있다.^{2,3} 또한 학령 전기 아동의 이야기 능력은 이후의 읽기, 쓰기와 관련된 학령기 학업 능력을 예측할 수도 있다.⁶ 정상 아동들의 이야기 능력은 4세가 되면 본격적인 발달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5세가 되면 기본적인 구조를 갖추게 되며, 6세가 되면 복잡한 이야기도 정확하게 전달하고 연결어미 및 접속 부사의 표현도 다양해지면서 완성도가 더욱 높아지게 된다.¹² 이와 같은 정상 아동의 이야기 발달 정보는 언어장애 아동의 진단 평가 및 치료교육에서 매우 유용하다.^{13,14} 하지만 우리 나라 아동의 이야기 발달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 연령에 따른 이야기 능력의 질적 특성에 대한 연구와 장애 아동과 정상 아동의 비교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선행 연구에서 이용되어 온 ‘그네 이야기’와 ‘꿈 이야기’를 이용하여 본격적인 이야기 발달이 이루어지는 4세부터 이야기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6세까지의 학령 전기 일반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야기 회상 과제를 실시하여 이야기 문법 총점과 평균질길이(MLC)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야기 문법 총점을 알아본 결과, 연령에 따라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세 집단은 5세 집단과 6세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고, 5세 집단은 6세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야기 문법으로 연령에 따른 이야기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매우 적절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배소영²의 연구에서는 3세~7세 아동을 대상으로 자발적 산출을 유도한 결과 4세, 5세, 6세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와 같이 자발적 산출보다 회상 산출에서 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회상 산출이 개인적 편차가 크지 않고,² 이야기 문법 지식을 가진 아동이 더 많은 정보를 회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²² 따라서 아동의 이야기

문법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자발적 산출보다는 회상 산출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 문법 하위 범주별 회상 점수에서 내적반응을 제외한 결과, 배경, 계기 사건, 시도, 결과가 모두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소영³ 연구에서 시도를 제외한 모든 이야기 문법 하위 범주가 연령에 따라 증가한다는 결과와는 조금 다르다. 이는 자발 산출과 회상 산출의 차이로 보인다. 따라서 이야기 문법 총점과 이야기 문법 하위 범주별 회상 점수 모두 자발적 산출보다는 회상 산출 결과가 연령에 따른 발달을 잘 나타내 주었다. 이는 앞으로 이야기 평가 도구 개발 시 회상 산출로 이야기를 유도하는 것이 임상적인 의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회상 산출을 통해 이야기 문법으로 연령에 따른 이야기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발달적인 의의가 있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의의가 있을 것 같다.

본 연구에서 이야기 문법 하위 범주의 빈도는 배경이 가장 높았고, 계기사건, 결과, 시도, 내적반응 순이었다. 김유정²⁰의 연구에서도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범주는 배경이었고, 그 다음 결과, 계기사건, 시도, 내적반응 순으로 나타났다. 두 연구 모두 배경이 가장 높고, 내적 반응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Strong¹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Stein과 Glenn¹⁶, Roth와 Spekmen²⁶이 회상연구에서 내적 반응이 회상되는 빈도가 낮다고 한 것과 같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들려준 이야기와 검사 도구, 검사 방법은 매우 적절하였다고 할 수 있고, 결과 또한 신뢰할 수 있다고 하겠다. 내적 반응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다른 이야기 문법 하위 범주에 비해 내적 반응은 가장 늦게 발달하며 6세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발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최은주²⁷는 이야기의 중요 내용을 담고 있는 범주는 다른 범주에 비해 잘 회상된다고 하였다. 이는 회상 연구에서 유의할 점이기도 한다. 검사자가 들려준 이야기에서 강조된 내용은 아동들이 더 잘 회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려주느냐에 따라 범주별 사용빈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그네 이야기’와 ‘공 이야기’는 아동의 자발적 산출을 토대로 선행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한 이야기이다. 따라서 들려준 이야기는 실

제 아동들의 산출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검사 도구로 매우 적절하였으며, 검사 결과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이야기 문법에 의한 회상율은 김유정¹⁹의 연구보다 더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는 김유정¹⁹의 연구에서는 이야기 문법 분석 시 0, 1, 2점 체계를 이용해 주어가 확실하지 않은데 생략했거나, 문장을 끝맺음하지 못한 경우 1점을 부여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 문법이 등장한 개수로 점수를 부여하였기 때문에 결과에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김유정¹⁹의 연구에서는 주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1점을 받을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 문법 개수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총점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Strong¹ 또한 본 연구와 같이 이야기 문법이 등장한 개수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주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어를 생략하거나, 주어를 잘 못 말하는 경우는 주로 4세에서 많이 나타났고, 6세 아동에서는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낱말로 본 평균절길이(MLC-w)를 알아본 결과, 4세는 9.02, 5세는 10.2, 6세는 12.29로 4세와 5세 집단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고, 4세와 5세 집단은 6세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평균절길이(MLC-w)가 연령에 따라 증가한다는 것은 평균절길이(MLC-w)가 연령에 따른 발달을 볼 수 있는 좋은 척도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Ukrinetz 등²⁸의 연구에서 5세가 8.7, 6세가 9.6으로 나타난 것과 Paul과 Smith⁵의 연구에서 4세 아동이 7.36을 나타낸 것보다 높은 수치이다. 하지만, 이들^{5,28}의 연구는 본 연구와 검사 도구가 다르고 들려준 이야기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다만 Ukrinetz 등²⁸의 연구에서도 5세에서 6세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낱말로 본 평균절길이(MLC-w)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동의 언어적 길이를 평가하는 또 다른 척도인 평균발화길이는 아동의 발화 내용을 언어적 길이로 평가하기 위해 가장 많이 쓰이는 단위이다. 그러나, 평균발화길이는 초기 언어발달 단계에서는 효과적인 표현언어발달의 척도가 될 수 있지만, 그 상관 연령의 한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²¹ Brown²⁹은 평균발화길이 4.0 단계까지, Miller와 Chapman³⁰, Rondal³¹은 4세까지 평균발화길리와 생활연령 사이

에 높은 상관관계를 관찰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다소 변화가 심하다고 하였다.²¹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평균절길이(MLC-w)가 4세 이후의 연령에서 증가하고 있어 평균발화길이보다 연령에 따른 발달을 볼 수 있는 좋은 척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4세 이후의 아동의 언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야기 과제가 필수적이며, 평균절길이(MLC-w)를 통해 언어적 길이를 평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셋째, 형태소로 본 평균절길이(MLC-m)를 알아본 결과, 4세, 5세, 6세 집단이 연령에 따라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낱말로 본 평균절길이(MLC-m)는 4세, 5세 집단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형태소로 본 평균절길이(MLC-m)는 연령에 따라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어 언어적 길이를 평가하는 데 민감한 척도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연구들은 형태소로 본 평균절길이(MLC-m)와 낱말로 본 평균절길이(MLC-w)를 모두 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낱말로 본 평균절길이(MLC-w)를 이용하여 이야기를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 Strong¹도 낱말로 본 평균절길이(MLC-w)를 이용하여 이야기를 평가하였다. 그러나 우리말과 영어는 낱말을 구분하는 기준이 다르다. 예를 들면, 영어에서는 정관사나 부정관사를 하나의 낱말로 취급하고, 우리말에서는 김영태²¹의 구분에 의하면 조사도 하나의 낱말로 취급한다. 따라서 미국에서 많이 쓰이는 낱말로 본 평균절길이(MLC-w)를 우리나라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좀 더 우리말의 특성을 잘 반영한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말은 조사, 어미와 같은 많은 문법 형태소를 내포하고 있는 언어이다. 형태소를 이용하여 언어적 길이를 측정한 김영태²¹의 연구에서도 영어권 문헌에 보고된 수치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 우리말이 영어보다 더 많은 형태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배소영¹²은 3세 이후 아동은 구 또는 절에 관련되는 문법 형태소의 발달이 두드러지는데, 우리나라 아동들은 조사, 어미 발달과 함께 다양한 구와 절을 발달시켜 나간다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4세, 5세, 6세 아동의 표현 언어를 평가 시 평균절길이(MLC)를 산출할 때, 낱말보다는 조사와 어미를 포함하는 형태소를 통해 평균절길이(MLC-m)를 산출하는 것이 연령에 따른 발달을 더 잘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강서 지역과 일산 지역의 만 4세~6세인 정상아동 60명을 대상으로 일회적인 실험을 통해 분석하여 보고하였다. Craig 등³²은 수입이 낮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가정의 4, 5, 6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야기 연구를 하였는데, 낱말로 본 평균절길이(MLC-w)와 형태소로 본 평균절길이(MLC-m)가 다른 연구 결과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지역과 부모의 학력, 사회경제적 수준을 고려한 연구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C-unit 구분과 이야기 문법 점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 자료와 국내 자료를 참고하여 아동의 산출한 내용을 일관성 있고, 공정하게 점수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더 많은 아동들의 이야기를 분석하다보면 본 연구의 분석 기준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고, 모호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우리말의 특성과 아동의 산출을 고려한 C-unit 구분과 이야기 문법 점수 기준을 더욱 보완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회상 연구이기 때문에 검사자가 들려주지 않은 이야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분석에서 제외된 이야기는 대부분 상황에 맞지 않거나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지만, 몇몇 아동들은 이야기의 마지막에 결과에 대한 추론을 적절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들려준 이야기에 대해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적절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들려준 이야기를 매우 잘 이해했다는 것 뿐 아니라 추론 능력까지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적절한 기준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분석한다면 그 결과도 매우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4~6세 아동의 이야기 능력의 양적 증가를 보는데 이야기 문법과 평균절길이(MLC)가 매우 효율적인 척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학령기 아동에게도 이야기 문법과 평균절길이(MLC)가 이야기 능력을 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지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아동들은 문법적, 의미적인 실수를 많이 나타내었다. 정상 아동들의 실수 경향은 발달 과정을 볼 수 있고, 장애 아동을 평가하고 교육할 때,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특히 이야기 과제는 문장 단위보다 더 많은 사회적, 인지적 개념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야기 과제에서 연령에 따라 실수 경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발달 순서는 어떠한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외국의 경우, 이야기 발달에 대한 연구들이 오랜 기간 동안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고, 이야기 평가를 위한 도구들도 많이 개발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정상 아동의 이야기 발달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하고 이야기 평가 도구도 제대로 개발되어 있지 않다. 앞으로는 표준화된 이야기 검사 도구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공 이야기’와 ‘그네 이야기’를 이용하여 본격적인 이야기 발달이 이루어지는 4세부터 이야기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6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이야기 회상 과제를 실시하여 이야기 문법 총점과 평균절길이(MLC)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야기 문법 총점을 알아본 결과, 연령에 따라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세 집단은 5세 집단과 6세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고, 5세 집단은 6세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이야기 문법 하위 범주별 회상 점수에서 배경, 계기 사건, 내적 반응, 시도, 결과가 모두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낱말로 본 평균절길이(MLC-w)는 4세 집단과 5세 집단이 비슷하게 나타났고, 4세와 5세 집단은 6세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짧게 나타났다.

셋째, 형태소로 본 평균절길이(MLC-m)는 4세, 5세, 6세 집단이 각각 연령에 따라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낱말로 본 평균절길이(MLC-w)에서 4세 집단과 5세 집단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형태소로 본 평균절길이(MLC-m)에서는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형태소로 본 평균절길이(MLC-m)가 더 민감한 척도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 이야기 문법과 평균절길이(MLC)를 통해 4~6세 아동의 이야기 능력을 양적으로 평가했을 때, 연령에 따라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이야기 문법과 평균절길이(MLC)으로 학령 전 아동의 이야기 능력을 양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분포를 고려하지 않았고, 대상자가 연령 당 20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아동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기에는 부족하지만, 정상 아동의 이야기 능

력을 양적으로 평가하여 이야기 문법과 평균절길이(MLC)가 이야기 발달을 보는 데 효율적임을 확인했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앞으로는 이야기 문법과 평균절길이(MLC)가 학령기 아동들에게도 연령에 따른 이야기 능력 발달을 볼 수 있는 척도가 되는지에 대한 연구와 이야기 과제에서 정상 아동들의 실수 경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표준화된 이야기 검사 도구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들도 활발히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Strong CJ. The strong narrative assessment procedure. Wisconsin: Thinking Publications; 1998.
- 2) 배소영, 이승환. 한국 아동의 이야기 산출 연구. 말-언어장애 연구 1996; 1: 34-67.
- 3) Liles ZB. Narrative discourse in children with language disorders and children with normal language: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J Speech Hear Res 1993; 36: 868-882.
- 4) Bishop DVM, Edmundson A. Language impaired four year olds: distinguishing transient from persistent impairment. J Speech Hear Disord 1987; 52: 156-173.
- 5) Paul R, Smith RL. Narrative skills in 4-year-olds with normal, impaired, and late-developing language. J Speech Hear Res 1993; 36: 592-598.
- 6) Feagans L, Applebaum ML. Validation of language subtypes in learning disabled children. J Edul Psychol 1986; 78: 358-364.
- 7) Ripich DN, Griffith PL. Narrative abilities of children with learning disabilities and nondisabled children: Story structure, cohesion, and propositions. J Learn Disabil 1988; 21: 165-173.
- 8) Morrow LM. Assessing children's understanding of story through their constructions of narrative. Assessment for instruction in early literacy. Englewood Cliffs(NJ): Prentice-Hall Inc; 1990.
- 9) Orsolini M. Episodic structure in children's fantasy narratives: "Breakthrough" to decontextualised discourse. Lang Cogn Proc 1990; 5: 53-79.
- 10) Botvin GJ, Sutton-Smith B. The development of structural complexity in

- children' fantasy narratives. *Develop Psychol* 1977; 4: 377-388.
- 11) Applebee A. The child's concept of sto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78.
 - 12) 배소영. 한국어 발달.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겨울연수회: 아동언어장애; 2002.
 - 13) Lund NJ, Duchan JF. Assessing children's language in naturalistic contexts. Englewood Cliffs(NJ): Prentice-Hall; 1993.
 - 14) Fey M. Language intervention with young children. San Diego: College-Hill Press; 1986.
 - 15) 윤희련. '다시말하기'를 통해 본 학령기 단순언어장애아동의 이야기 이해 및 산출 특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 논문; 2005.
 - 16) Stein NL, Glenn C. An analysis of story comprehension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Freedle R(Ed.). *New directions in discourse processing*. New York: Ablex; 1979.
 - 17) Johnston J. Narratives: a new look at communication problems in order language children. *Lang Speech Hear Serv Sch* 1982; 13: 144-155.
 - 18) Kintsch W, Mandel TS, Kozminsky E. Summarizing scrambled stories. *Memory Cogn* 1977; 5: 547-552.
 - 19) 김유정, 배소영. 학령전 단순언어장애아동과 정상언어발달아동의 이야기 능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004; 17: 41-58.
 - 20) Gazella J, Stockman IJ. Children's story retelling under different modality and task conditions: implications for standardizing language sampling procedures. *Am Speech Lang Pathol* 2003; 12: 61-73.
 - 21) 김영태. 한국 2-4세 아동의 발화길이에 관한 기초연구. *말-언어장애연구* 1997; 2: 5-26.
 - 22) Page J, Stewart S. Story grammar skills in school-age children. *Top Lang Disord* 1985; 5: 16-30.
 - 23) Fitzgerald J, Spiegel D. Enhancing children's reading comprehension through instruction in narrative structure. *J Read Beh* 1983; 15: 1-17.

- 24) 김영태.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2000.
- 25) 배소영, 임선숙, 이지희, 장혜성. 구문의미이해력검사.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2004.
- 26) Roth FP, Spekman NJ. Narrative discourse: spontaneously generated stories of learning-disabled and normally achieving students. *J Speech Hear Disord* 1986; 51: 8-23.
- 27) 최은주. 이야기 회상능력에 대한 일반아동과 학습장애아동의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28) Ukrinetz TA, Justice LM, Kaderavek JN, Eisenberg SL, Gillam RB, Harm HM. The development of expressive elaboration in fictional narratives. *J Speech Hear Lang Res* 2005; 48: 1363-1378.
- 29) Brown R. *A first language: the early stag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 30) Miller JF, Chapman RS. The relation between age and mean length of utterance in morphemes. *J Speech Hear Lang Res* 1981; 24: 154-161.
- 31) Rondal JA. Maternal speech to normal and Down's syndrome children matched for mean length of utterance. In C. Meyers(Ed.). *Quality of life in severely and profoundly mentally retarded people: research foundation for improvement*. Washington, DC: American Association on Mental Deficiency; 1978.
- 32) Craig HK, Washington JA. Average C-unit lengths in the discourse of African children from low-income, urban homes. *J Speech Hear Lang Res* 1998; 41: 433-444.
- 33) 배소영, 이윤경, 권유진. 이야기 평가(연구 중).

부록 1. 그네 이야기 - 회상용(배소영 등³³에서 인용함)

| C-unit | 내용 | 이야기 문법 |
|--------|----------------------------------|--------------|
| 1 | 민이랑 민이엄마랑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 배경 |
| 2 | 그런데 민이는 텔레비전이 재미없어졌어요. | 계기 사건 |
| 3 | 민이는 그네가 타고 싶었어요. | 내적 반응 |
| 4 | 그래서 밖으로 나가 그네를 탔어요. | 시도 결과 |
| 5 | 철이가 놀이터에 놀러왔어요. | 배경 |
| 6 | 철이도 그네가 타고 싶어서/ 민이에게 같이 타자고 했어요. | 내적 반응/ 시도 |
| 7 | 그래서 민이와 철이는 재미있게 그네를 탔어요. | 결과 |

부록 2. 공 이야기 - 회상용(배소영 등³³에서 인용함)

| C-unit | 내용 | 이야기 문법 |
|--------|-----------------------------|-------------|
| 1 | 순이랑 돌이가 길거리에서 공놀이를 했어요. | 배경 |
| 2 | 그런데 순이가 공을 차도 쪽으로 던졌어요. | 계기 사건 |
| 3 | 그때 자전거 탄 어떤 아저씨가 돌이쪽으로 왔어요. | 계기 사건 |
| 4 | 돌이는 공을 받으려고 차도로 나갔어요. | 내적 반응 시도 |
| 5 | 그러다 돌이는 자전거와 부딪쳐 넘어졌어요. | 결과 |
| 6 | 그래서 돌이 다리에 피가 났어요. | 결과 계기 사건 |
| 7 | 아저씨는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 내적 반응 |
| 8 | 그리고 철이에게 병원에 가자고 했어요. | 시도 |
| 9 | 아저씨는 철이를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 결과 |

부록 3. 이야기 문법 채점 기준(최은주²⁷에서 인용함)

1.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었을 때, 또는 앞선 발화와 주어가 동일하여 생략된 경우에는 완전한 내용으로 간주하여 이야기 문법 점수를 부여한다. 주어가 확실하지 않은데 생략했거나, 문장을 끝맺음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완전한 내용으로 간주하여 이야기 문법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2. 아동이 회상한 내용은 원래 이야기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아동이 첨가한 내용이거나, 들려준 내용과 다를 경우, 분석에서 제외한다.
(예) 아저씨가 병원에 데려다 줬어요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집에 갔어요)
(예) 철이도 그네를 같이 타자고 했어요 (순이도 같이 타자고 했어요)
※ () 부분은 분석에서 제외한다.
3. 이야기문법 범주는 들려준 이야기에 근거한다. 아동이 회상 산출한 이야기 내에서 다시 이야기 문법을 구분하지 않고, 원래 이야기에서의 이야기 문법에 따라 해석한다.
4. 원래 이야기에서는 하나의 C-unit이었는데, 아동의 두 개 이상의 C-unit으로 더 자세히 표현한 경우 이야기 문법 점수를 1점 부여한다. 반면, 들려준 이야기에서 두 개의 C-unit을 아동이 하나의 C-unit으로 표현하지만, 두 개의 이야기 문법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경우 2점을 부여한다.
5. ‘그네 이야기’에서 ‘그래서 민이와 철이는 재미있게 그네를 탔어요.’에서 주인공 두 명이 같이 탔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민이와 철이’, ‘같이’, ‘둘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이야기 문법이 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평균절길이 분석에는 포함시킨다.
6. 서술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은 이야기문법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예) 엄마랑 민이랑 텔레비전
 철이랑 자전거랑 쿵
7. 낱말 찾기 오류가 있을 경우 이야기 문법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예) 그네를 탔어요 → 시소를 탔어요
8. 구문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이야기 문법 점수를 부여한다.

부록 4. C-unit 구분 및 평균절길이(MLC) 채점 기준(Strong¹에서 인용함)

1. C-unit(Communication unit)는 하나의 의사소통 단위로서 주절 즉 “주어+서술어”로 이루어진 문장이 기본 단위이며, 주절에는 종속적으로 이어지거나 안긴 문장 즉, 종속절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대등적(나열 및 대조)으로 연결된 주절 문장은 두 개의 C-unit으로 구분한다.
(예) 엄마랑 순이랑 텔레비전 보고 있는데/ 텔레비전이 재미없었어요- 2개
민이는 텔레비전이 보기 싫어서 밖으로 나갔어요 - 1개
2. 연결어미 ‘~서’는 원인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종속절로 간주하여 1개의 C-unit으로 나누고, 시간에 따른 순차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2개의 C-unit으로 나눈다.
(예) 철이가 넘어져서/ 피가 났어요 - 2개
놀이터에 나가서 그네를 탔어요 - 1개
3. 2초 이상의 휴지(pause)가 나타나면 2개의 C-unit으로 나눈다.
(예) 철이가 넘어져서(휴지)/ 피가 났어요 - 2개
4. 등장인물을 ‘남자 친구’, ‘여자 아이’, ‘순이 친구’, ‘어떤 아이’ 와 같이 표현한 경우도 인정하며, 1개의 형태소로 간주한다.
5. 의성어, 의태어도 내용이 적절하면 1개의 낱말 및 형태소로 포함시킨다.
(예) 찌르릉찌르릉, 과당
6. 형태소 오류도 분석에 포함시킨다.
7. 간투사는 분석에서 제외시킨다.
(예) 아저씨가 (자꾸) 자전거 탔대요/넘어졌어요(자꾸)/피났어요(자꾸)/(자꾸) 병원에 갔어요
8. ‘~다가’로 연결되는 발화는 2개의 C-unit으로 구분한다.
(예) 어떤 아저씨가 자전거 타다가/ 남자 아이가 부딪쳤어요 -2개
(예) 순이가 공놀이를 하다가/ 차도에 공을 던져가지고- 2개
9. 자발적으로 수정한 경우 들려준 이야기 정보에 더 가까운 것을 분석한다.
(예)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예) (자전거에 부딪쳤어요) 철이가 자전거에 부딪쳐서 다쳤어요.
10. 이야기 문법에서 점수를 부여하지 않은 C-unit도 회상한 내용이 적절하면 평균절길이 분석에 포함한다.
(예) 민이랑 엄마랑 텔레비전
(예) (주어 생략) 넘어졌어요

Preschoolers' Story Retelling Abilities according to Age

Ki Soon Kim

Graduate Program in Speech and Language Pathology,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Ji Cheol Shin)

Children's ability to tell stories increases as they grow older. Usually, children are able to express their views and opinions effectively by 3 years of age and their storytelling ability matures by 6 years of age. The storytelling ability of preschoolers is used in general to assess the ability of children with impaired language for the purposes of diagnosis and treatmen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differences in children's story retelling abilities according to age by measuring the total scores of story grammar, MLC-w(Mean Length of Communication in words) and MLC-m(Mean Length of Communication in morphemes) during the story retelling task.

The study subjects comprised 60 preschoolers aged 4 to 6 years. Two Korean stories, "The Swing story" and "The Ball story" written by Bae So-Young, were used as assessment tools along with matching story cards. The author showed the story cards to the children, told a story corresponding to cards, then removed the story cards and asked the children to retell the story they had just heard. When a child retold the story in her or his own words, the grammatical correctness, MLC-w and MLC-m were scored. The total scores

of story grammar, MLC-w, and MLC-m were compared to determine the differences in story retelling abilities according to age. The study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total scores of story grammar significantly increased with increasing age. The total scores of story grammar of the 4-year-olds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the older children (5 to 6 years). The 5-year-olds showed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the 6-year-olds. Moreover, the older age group outperformed the younger age groups in setting information, initiating event, internal response, attempt and the direct consequence increased among the subscales of story grammar.
2. Ag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MLC-w. The MLC-w spoken by the 4-year-olds was significantly shorter than that of the 6-year-olds, although it did not significantly differ from that of the 5-year-olds.
3. Age also had a significant impact on MLC-m. The MLC-m spoken by the 4-year-olds was significantly shorter than that spoken by the older age groups. There were also significant differences in MLC-m between the 5- and 6-year-olds. This result contrasts with the insignificant difference in MLC-m between the 4- and 5-year-olds. The given grammatical functions of morphemes, such as the endings of words or particles, MLC-m was mo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ge than MLC-w.

The study found that preschoolers' ability to retell storie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age considering their increased story grammar abilities and MLC. The use of story grammar and MLC is therefore considered effective as an assessment scale to measure children's storytelling ability.

Further study is needed to determine whether these assessment scales are effective to measure storytelling abilities in school children and to measure the mistakes made by normal children when they express their views and opinions. Further study is necessary to develop a standardized assessment tool

that can be used for measuring child's storytelling abilities.

Key words: preschooler, story retelling, story grammar, Mean Length of Communication